

■ 주요 기사

○ 임금체계 개편 조사(2건)

중앙	호봉제 근로자 비율 49.9%
동아	호봉제 근로자 비율 첫 절반 아래로 뚫

○ 이랜드파크 임금체불 관련(2건)

동아	‘알바 임금 미지급’ 이랜드파크 대표 해임
매경	‘임금체불’ 이랜드파크 대표 해임

■ 주요 칼럼 · 사실

○ 日 노동시장 유연화 관련(1건)

한경	[사설] 부업을 허용하는 일본의 새로운 취업규칙에 주목한다
----	--

■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내 용	
조선	노동	제목	"車업계 임금 투쟁 피해,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가" B11면
		내용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국내 자동차 산업은 잦은 노사 분규와 고임금 구조에 발목이 잡혀 경쟁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발언
중앙	노동	제목	호봉제 근로자 비율 49.9% E3면
		내용	고용부가 전국 100인 이상 6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계를 바꾼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근속에 따른 호봉제를 운영기업은 71.8%로 지난해 말(74.5%)보다 2.7%p 하락. 호봉제 적용 근로자는 49.9%로 지난해보다 7%p 낮아짐
	환경	제목	[간추린 뉴스] 생활화학제품 광고에 '무해한' 문구 금지 A18면
		내용	생물을 죽이는 기능의 화학물질인 '살생물제'는 정부 승인을 받게 하고, 이런 물질을 화학제품에 쓸 경우 허가를 의무화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이 28일 입법예고 예정
동아	노동	제목	호봉제 근로자 비율 첫 절반 아래로 뚫 B3면
		내용	고용노동부 '2016년 11월 기준 임금 결정 사업장 임금체계 개편 현황'에 따르면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 6600곳의 근로자 가운데 근속연공급(호봉제)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49.9%인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56.9%)보다 7%포인트 하락
		제목	'알바 임금 미지급' 이랜드파크 대표 해임 B6면
		내용	고용노동부가 이랜드파크 외식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사항을 발표한 데 따라 이랜드그룹은 책임을 물어 이랜드파크 대표이사 및 경영진에 징계를 내림
매경	노동	제목	'임금체불' 이랜드파크 대표 해임 A20면
		내용	아르바이트 급여 약 84억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해 비판을 받아온 이랜드파크가 대표이사 해임 등 징계 조치를 받음
	고용 복지	제목	아베 4년이 바꾼 日...구직자 느는데 일자리는 더 늘다 A8면
		내용	일본의 구직자 대비 채용 기업 비율을 나타내는 유효구인 배율이 11월에 1.41배를 기록해 경제 버블기였던 1991년 7월 이후 25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한경	노동	제목	"HMC투자증권 저성과자 외부조직 배치는 적법" 24면
		내용	법원이 성과가 낮은 직원을 회사 내 외부판매(ODS) 조직으로 배치하는 인사조치가 적법하다 판결. 저성과자에 대한 성과 향상 프로그램 도입에 기업과 노조 측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2심에서도 사측이 승소해 눈길을 끄
		제목	[사설] 부업을 허용하는 일본의 새로운 취업규칙에 주목한다 39면
		내용	일본은 노동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 그중 가장 먼저 실현되는 부업·겸업 허용은 노동시장 유연화의 사례요, 시장변화의 반영. 노동개혁이란 판만 깔아 놓고 한 발짝도 못 나간 우리 현실에선 먼 나라 얘기

매체명	주 제	내 용	
한겨레	고용 복지	제목	“ 고령자 말고 ‘장년’이라 불러주세요 ”...55살 이상 장년으로 통칭 A14면
		내용	55살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했던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고령자’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장년’이라는 말로 대체. 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희망퇴직·정리해고 등 50살 이상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금일 경향신문은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끝>